

## (8) 가타오나미 공원 만엽의 길 (제 7 권 1213 번)

### 【시비 내용】

나구사야마 코토니시아리케리 아가코이노 치에노히토에모 나구사메나쿠니

### 【해설】

이 시는 만요슈(만엽집) 제 7 권에 실린 시(1213 번 시)입니다. 나구사야마는 와카우라만의 동쪽에 우뚝 솟아있는 산입니다. 이 비석 앞에 보이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산세를 가진 산이 그것입니다. 이 곳을 찾은 만요(만엽) 사람은 눈 앞에 펼쳐지는 잔잔한 바다, 그리고 온화하게 자리한 나구사야마(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작자는 나구사야마의 “나구사”에, 마음을 위로 받는다는 의미의 “나구사”를 연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구사야마를 향해도 마음은 위로받을 수 없었을까요. “나구사야마는 이름 뿐인 산이었구나.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의 천분의 일도 위로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읊었습니다.

만요슈시대의 “사랑”은 애절하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애절함을 나구사야마는 안타깝게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시비의 문자는 **히에다 카즈호** 씨의 필적입니다.